

이재명 정부, '트럼프 서한' 관세 협상 총력전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 발 빠른 대응 李대통령, 미국 급파 위성락 보고받아 협상 실패시 '경제 성장' 기조에 악재

이재명 정부가 8일 새벽 날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에 급박하게 움직이며 '관세 인하' 총력전에 나섰다.
현재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 급파한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긴밀히 보고받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전 정부적 상황 파악에 나섰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양자-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를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이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는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서한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동일했지만 부과 개시 시점은 당초 이번 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늦춰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SNS를 통해서도 공개된 '청구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협상 시간을 3주가량 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회를 살려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관세 부과 일까지 남은 24일간 최대한 관세를 인하를 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협상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타결시키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이 약 3주의 시간을 추가 제시한 것은 그만큼

협상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는 협상에 박차를 가해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같은 의지의 배경에는 상호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면 우리 경제가 막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경제 성장' 기조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한편, 위성락 실장은 전날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진수 기자



국정기획위, 목포시 '소통버스' 운영
국정기획위원회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호남권 방문 첫 날인 8일 목포시 석현동에서 국정기획위 박규성 국장 등이 소하천 침수 예방정비 현장을 찾아 시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1'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만기적립금 42억 지급

전남도, 2022년 가입자 592명 대상 자산 형성·안정적 미래 설계 지원

전남도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 592명에게 총 42억원 규모의 만기 적립금을 지급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과 지자체가 매월 각 10만원씩 3년간 공동 적립, 만기 시 720만원과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의 안정적인 미

래 설계와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만기 적립금을 수령한 청년은 2022년 가입자다.

전남도가 만기 수령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급받은 적립금은 ▲주거비(66%) ▲취·창업 자금(19%) ▲결혼 자금(13%) ▲학자금 대출 상환(2%)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7천64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타 시·도로 진출한

경우 등을 제외한 4천361명이 누적 약 317억원의 만기 적립금을 수령해 자산 형성에 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신규 사업 대상자 646명을 선정했다. 오는 8월 추가 모집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설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일하고 꿈을 실현하도록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의결

국회 교육위, 여야 합의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안정적인 지방재정교부금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전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30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김진수 기자

전남동물위생시험소, 가금 도축장 연장 운영

내달 중순까지 복날 닭·오리 수급 안정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8일 "닭, 오리고기 등 가금육류 소비량이 20% 이상 늘어나는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 8월 중순까지 가금 도축장 휴일 개장 등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되는 도축 물량을 적기에 해소해 소비자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전남에서 도축된 가금류는 9천273만7천마리로 연간 도축 물량의 30%인 2천760만7천마리가 6-8월에 집중적으로 도축·유통됐다.

이에 가금 도축장 개장 시간(오전 7시~오전 5시)을 앞당기고 작업 종료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평소보다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토·일요일과 주중 공휴일에도 개장해 복날 성수기 동

안 가금류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과 급증한 도축 물량으로 도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도축장 내 환경과 식육을 대상으로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 유발 미생물 검사를 강화, 일반미생물 수 증감 및 식중독균 노출 여부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식육 항생제 잔류물질 검출을 위한 신속 검사 키트도 적극 활용해 식육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복날 성수기 가금 도축장의 조기 개장·연장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선한 전남산 가금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